

푸코를 통한 비평가적 문제제기

김현 지음 「시칠리아의 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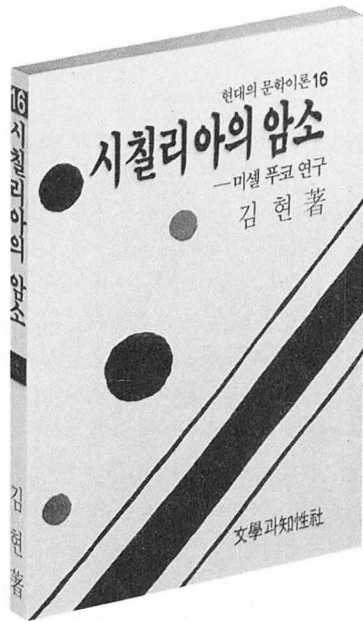
오생근

서울대 교수 · 불문학

김현씨는 잘 알려져 있듯이 문학평론가이자 불문학자이다.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교수이면서 한국문학의 일선비평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김현씨처럼 외국문학에 관한 학문적 탐구와 현실에서의 문학비평적 열정이 상호적으로 열려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충전시키고, 새로운 시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대체로 외국문학 전공자가 한국문학을 대상화하여 문학비평이나 문학기론을 전개할 때, 그의 관심과 평가 기준은 어느 한쪽에 기울어 있거나 경직되기 쉽다. 그리하여 한국문학을 편협하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외국문학을 제한된 시각으로 협소한 공간속에 묶어두려 한다. 외국문학 연구자의 정신과 탐구에 있어서 그러한 양자의 관심이 통일된 방향으로 상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를 만나기란 흔치 않은 일이다.

김현씨의 문학비평과 불문학연구-그것이 문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철학, 역사, 사회학, 인류학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지만-는 동일한 시각과 열정에 뿌리를 두고 상호적으로 맞물려서 가동하는 탐구의 영역이자 표현형태들이다. 그런 점에서 「시칠리아의 암소-미셀 푸코 연구」는 단순히 한 외국철학자를 대상화한 연구서가 아니라 저자의 비평적 성찰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또한 그러한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새롭게 독특하게 조명할 수 있게 된 저서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평가인 김현씨와 푸코를 동시에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저자가 얼마전에 공간한 비평집 「분석과 해석」에서의 그 정치한 분석과 원숙한 역사주의적 시각, 아니면 그 책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텍스트들의 얽힘에 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고 장르에 대한 주의력이 깊어졌지만, 「장르는 좁은 도식 속에서가 아니라 열린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추구가 사실은 푸코가 탐구했던 장르개념의 역사적 제한과 그것의 확대해석이라는 변증법적 작업, 또는 계보학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알게 된다.

「분석과 해석」이 이 시대의 중요한 문학평론집으로서 그것의 의미가 깊이있게 천착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저자가 왜 이 무렵에 푸코에 경사되어 있었으며, 푸코를 통해 그가 알고자 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인식하는 작업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푸코에 대한 비평적 관심의 결정체로서 상재된 「시칠리아의 암소」는 당연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이 책은 저자의 비평가적 태도와 문제의식이 많이 스며들고 또한 분출되어 있는 연구서이다.

그는 20세기 프랑스의 세계적인 한 지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면서 숨가빠하거나 버거워 하기는 커녕, 마치 한국의 어느 중요한 작가의 작업을 분석하고 해석하듯이, 그렇게 날카롭고 폭넓은 전망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는 푸코의 텍스트들을 꼼꼼히 읽고, 그의 사유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동의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푸코의 문학비평중에 독창적인 것은 그리 많지 않”으나 “별로 독창적이지 않은 것들을 관계지우는 그의 글쓰기는 그러나 매우 독창적”이라는 비평적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대담한 가설과 추리 돋보여

그는 푸코에 관한 연구서들을 국내의를 막론하고 섭렵하면서, 그 연구서들과 다른 자신의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푸코가 제시한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역사서술에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 신사학, 문학 개념의 변모 등의 문제 등은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아직 거의 연구되지 아니하고 있는 듯”하다는 포괄적 평가와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푸코의 모든 사유의 기저에는 바로크-고전주의-낭만주의-사실주의-상징주의-초현실주의로 이어지는 프랑스적인 문학적 체험이 자리잡고 있”다는 가설에서 그의 “에피스테메 이론은 문화사조론의 이론적 변형이며, 그것의

한계는 사조론의 한계와 엇비슷하다”는 것을 단정짓기도 한다.

이처럼 저자는 대담한 가설과 추리, 평가와 진단을 서슴치 않으면서, 한 철학자의 사상과 변모, 인식방법 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의 특유의 비평가적 시각을 예리하게 펼쳐보인다. 그는 왜 푸코를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 푸코에 대한 관심의 출발이 문학비평가로서 푸코를 정리해보자는 의도에서였고,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다른 주제로 확산되어간 계기가 되었음을 저자는 말하지만, 우리의 추측으로는 푸코의 인식체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정신의 또다른 현상과 연관시키면서 푸코식으로 전체적 앎을 지향하는 의도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처럼 보인다. 참된 문학비평이란 앎을 앎답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의 근거를 성찰하면서 결국 전체적 앎을 지향해야 하는 것 아닐까?

여하간 저자는 푸코가 다룬 문제들을 자신의 시각과 결부시켜 온몸으로 부딪치면서 자신의 삶과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힘든 의지를 보인다. 이러한 의지의 수단으로서 푸코는 저자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종결지을 수 있는 안식처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열려 있는 문제의식을 요구하며 동시에 촉발시키는 긴장된 상황의 표현으로 함축된다.

이 책에 실린 여러 논문들의 끝 부분에서 저자가 문제를 정리한 결론을 쓰기보다 오히려 문제제기적 시각을 부연하는 까닭은 그런 점에 서이다. 그는 푸코와 하버마스의 상이한 논거를 비교한 논문의 끝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푸코와 하버마스의 토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한다. 이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미학적 현대성은 옹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기술의 진전, 행정의 합리화는 인정해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로서는 의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푸코가 우리에게 왜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근거일 것이다.

“이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다”

「시칠리아의 암소-미셀 푸코연구」는 결국 김현씨만이 쓸 수 있는 푸코연구서이다. 이것은 두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푸코는 문학, 영화, 음악, 미술, 역사, 정치, 철학, 법,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과 광범위한 지적 열정을 보인 사람인데, 그러한 전체적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박식함과 통찰력을 김현씨만큼 갖춘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철학이나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푸코를 인식하는 한계성을 떠나 그의 문학비평가적 측면이나 혹은 벨라스케스와 마그리트와 같은 화가들 작품을 해석하는 미술비평가적 측면을 다룬 깊이있는 논문들이 실려 있는 것은 그만큼 푸코에 대한 전체적 인식을 반영한다.

둘째, 저자는 푸코의 작업이 동시대의 다른 지식인들의 작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보학적 규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비평적 시각에 의존하여 이렇게 정리한다. “푸코를 만든 것은 세 갈래의 지적 전통이다. 하나는 니체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이며, 또 하나는 전복적 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좌파의 바타이유, 우파의 블랑쇼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이고(아마도 바르트도 이 전통 속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바슐라르에게서 내려오는 과학사적 전통이다. 그 세 부류의 전통의 길항이 푸코를 만든 힘이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지식의 계보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푸코를 계보학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어려운 규정을 주저없이 할만한 근거에는 오래전부터 무르익은 니체, 바슐라르, 바르트, 블랑쇼, 바타이유 등의 철학자와 문학자에 대한 천착과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데리다, 들뢰즈, 보드리야르와 같은 프랑스 철학자들 뿐 아니라 하버마스, 벤야민 등의 독일 철학자들과 푸코와의 관계 혹은 차이가 논의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들에 대한 폭넓은 지적 욕구의 표현이자 성과로서 보인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그가 푸코를 통해 온몸으로 부딪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암시 하면서 세상일이 자기 바라는 대로만 될 수 있다면, “이 우주를 산산이 부숴뜨려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이 기원을 단순히 꿈꾸지 않고, 그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의 끝까지 가며, 실천해 보았다. 그 실천의 자취가 바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임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다.

문학과학성사 / A5신 / 232면 / 3500원